



복잡미묘한 동북아 확장 억제

한미일 전략 대화 회의 보고서

Brad Glosserman

ISSUES & INSIGHTS

회의 보고서

CR-1 20 호 | 2020 년 5 월

하와이, 마우이

퍼시픽 포럼 (Pacific Forum)

퍼시픽 포럼(www.pacforum.org)은 호놀룰루를 기반으로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외교 정책 연구소입니다. 1975 년에 설립된 이래 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연구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아시아의 관점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글로벌 리더, 정부 및 대중을 상대로 프로젝트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제공합니다. 퍼시픽 포럼의 프로그램은 정치적, 안보, 경제 및 해양 정책 관련 현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연구 · 분석 · 대화를 통해 역내 협력을 촉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목 차

감사의 글	iv
회의 주요 결과.....	v
회의 보고서	1

첨부

첨부 A	A-1
첨부 B	B-1
첨부 C.....	C-1

감사의 글

이 출판물은 미국 공군, 공군사관학교의 후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협약 번호 FA 7000-19-2-0016에 의거, 미국 공군사관학교 및 퍼시픽 포럼이 후원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정부는 저작권 표시에 관계없이 정부 목적을 용도로 동 보고서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의견·결과·견해·결론 또는 권고 사항은 저자의 것이며, 명시적으로든 혹은 묵시적으로든 미국 공군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배포 정책 A. 배포 제한 없음.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마우이 한미일 전략 대화

퍼시픽 포럼은 미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과 미국 공군사관학교 PACSS (Project on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on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지원을 받아 41 여 명의 한미일 전문가들과 8 명의 퍼시픽 포럼 영 리더(Young Leaders)들을 초청해, 2019년 9월 5일~6일간 핵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전망 및 장애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협력해 동북아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도발 상황을 가장한 2 단계 모의훈련/위게임(TTX)을 실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국들간 정치적 대립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상황과 역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참가자들간 이견은 거의 없었고, 이것은 TTX 참여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기회주의를 방지하고, 적들에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성급하게 개별 사건을 연결짓지 않았다.

한일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 해결에서 핵무기가 맡는 역할, 일본에서 문제는 미중간 힘의 균형 문제에 관해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에 충실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참가자들은 동맹들의 재래식 전력 강화 및 원활한 동맹 조정 능력이 확장 억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치적 디커플링, 또한 정치적 디커플링이 전략적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정치적 디커플링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략적 협력 및 한미일의 억제력 강화에 방해가 되며 중국과 북한이 한일 양자 및 한미일 삼자 동맹에 대항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시아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나토간의 관계 및 핵 협력에 대한 오해가 가시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한일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보다 유럽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며 미국이 아시아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최상의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나토와 같은 핵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나토간 핵 협력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기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동맹국들은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경우 그 과정에서 정해진 결정에 대한 책임이 수반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이 재래식 전력을 제고하고 있는바,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억제 관련 논의는 재래식 전력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맹간 상호 운용성을 포함, 재래식에서 핵전력을 아우르는 군사 능력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가 확장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향후 역량 개발 및 다영역 작전도 확장 억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전투 환경에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확산은 여전히 수년이 걸릴 것이지만 안보정책가들은 앞으로 변화할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각국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GSOMIA의 미래와 중요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쟁도 있었다. 한국 참가자들은 11월 만료까지 아직 GSOMIA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혹시 GSOMIA가 만료되더라도 정보 공유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참가자들은 3자정보공유협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가 GSOMIA를 대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GSOMIA에 대한 한일간 이견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때때로 정보 교환을 위해 누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등 국가의 자존심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전 회의에서와 같이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군사 전략이 한반도를 벗어나 역내 안보 확보, 강대국간 패권경쟁,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도전에 대응하도록 설계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지속 혹은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 동맹의 관리 및 국방과 외교간 적절한 균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 국방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한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안보 전략가들은 일본이 더 이상 영공 및 해상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영역 작전을 통해 전반적인 전력의 우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단,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표명했다.

억제력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적들로 하여금 미국이 확전(escalation)을 불사할 위협이 그들이 확전을 불사할 위협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지역 및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 더 주목할 일이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여 세계의 힘의 균형상 미국의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새로운 무기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배치될 무기들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임을 강조해야 한다.

향후 아시아 지역내 위기 발생시 미국과 아시아 역내외 동맹국들은 위기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적국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가상훈련 1 단계

중국 해역 근처에서 불법으로 선박간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공격을 받고 그 대응으로 잠수함을 공격했다. 한편 KADIZ 에서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한국의 감시 항공기가 중국군 전투기와 충돌하여 실종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 준비를 시작한다. 북중 관계가 현저히 개선되면서, 중국의 무력 시위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을 도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관건은 그것을 단독 사건으로 봐야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의 일부인지에 관한 것이다. 만일 후자일 경우, 그것이 중국 외 다른 어떤 국가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동맹국은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긴장완화를 위한 긴장고조 (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가자들이 북한 핵 실험 준비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북한 핵실험은 이미 '정상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동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비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적국들의 도발에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국의 국민들이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가상훈련 2 단계

중국은 상해 인근 연안에서 실종된 잠수함을 찾는데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핵 전력 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연평도를 점령하고,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켰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동맹을 와해시키고 중국 중심의 안보 질서를 확립하려는 북중 공동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미국과 동맹국은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확전도 감수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폭발에 대한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에 따라 자신들의 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고, 또한 북한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한반도가 핵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참가자들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참가자들은 복잡한 위기 상황속에서 적국에게 보내는 신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투를 위한 태세와 시그널링을 위한 태세는 어떤 전력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지 등의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또한 같은 전투

태세도 여러가지 목적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적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적들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비군사적수단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것은 진정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전략 및 전술 레벨 계획 고려 사항:

- 동맹간 협력은 각 동맹국이 동시에 각기 다른 우발 사태에 직면할 때 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동맹간 협력의 효과는 기존 역내 군의 태세, 역할, 임무에 따라 상이하다. 동북아 내에서는 일본이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바가 한국이 미일동맹에 기여하는 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전략 개념 (방식)의 개선은 능력 및 역량 (방법)의 향상을 보완한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개념 방식의 변화는 보다 가시적인 역량의 향상만큼 억제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 미국의 군사전략이 동시에 대규모 전투를 시행하는 방식에서부터 보다 제한적이고 순차적인 접근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기 발생시 적들로 하여금 이를 기회로 인식하는 (그것이 실제이든 허상이든) 우를 범하도록 할 수 있다.
-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역내 갈등 발생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가 동북아내 비상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틈 타 유럽 등 타 지역에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또한 외교 및 군사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동맹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전과 달리 중러 관계가 갈등이 아닌 조정 및 협력 관계로 발전했고, 2016 년 이래 양국간 공동 작전이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정책 제언:

- 각 동맹내에 나토의 핵정책그룹 (Nuclear Policy Group)과 유사한 양자 국방장관급 안보 메커니즘을 설치, 핵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동맹의 계획, 훈련 및 역량 강화 상황을 검토하도록 한다.
- 동북아 억제 의제를 확대해 재래식 전력도 포함한다.
- 역내 단일 혹은 다중의 갈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한미일 삼자 협력을 확대하고 삼자 군사 훈련 수준을 지휘소 레벨에서 야전 레벨로 확대한다.

복잡미묘한 동북아 확장 억제

회의 보고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북 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¹ 중국의 영향력 확대과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 군사 현대화 노력,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 약속에 대한 신뢰 저하, 한일 간 긴장 고조 등은 동북아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동 사안들의 중대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퍼시픽 포럼은 미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 (DTRA)의 지원 하에 제 6 차 한미일 전략 대화를 개최했다. 한미일 삼국을 대표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41 명의 전문가 및 공무원, 그리고 8 명의 Young Leader 들이 이틀 동안 동북아 핵 위기 시뮬레이션 포함, 정책, 정치, 각국의 관점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여느 때와 같이, 동 보고서는 참가자들이 택한 합의문이 아닌 토론 내용에 대한 저자들의 해석을 담고 있으며, 참가자 혹은 참가자들이 속한 기관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동북아 확장 억제

회의 토론은 전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동북아 확장 억지에 대한 평가로 막을 열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과 미국 동맹의 한계선을 시험하며 “회색시대”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등 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에 도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역내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의 헛갈리는 신호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으나, 미국이 우방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낙관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독자적인 길을 가기 보다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 힘을 입었다.

미국에 대한 신뢰는 미국이 전 세계 어디든 30 분 이내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위협 대응에 있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력의 현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군의 현대화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확실한 “blue theory of victory”²는 부재한 상황이다.

발제자는 두 가지 정치, 군사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국방 및 외교 정책 논리에 도전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지에 대한 불안이다. 두 번째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역내 성공적인 확장 억제의 핵심 요소인 삼자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당파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보통은 초당적인 이슈라고 주장하는) 억제 정책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상 모든 (15 개 중 14 개의) 군축 협정을 파괴하기로 한 점 등은 동맹 간 협력을

¹ 동 리포트는 COVID-19 발발 이전에 작성되었다.

² “Blue theory of victory”란 미국이 핵무장한 적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긴장고조 (escalate to de-escalate)”하면서도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가정들을 일컫는다.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정치적 요인들이다. 러시아 이슈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군사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는 미국이 군사적 대결에서 우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위 “전략적 부실” 가능성이다. 국방 전략위원회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등 권위있는 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더 이상 미군의 군사적 힘의 우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하기 힘들거나 하물며 패배할 수도 있다”³고 경고했다. 시드니 대학의 미국학센터는 “미국은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우위를 누리지 못하며 힘의 균형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능력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⁴며 더욱 부정적인 평가 내놓았다. 중국과 러시아간 정치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군사 역량 약화는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한 동안 일부 동맹국들은 동북아 확장 억제 문제의 “해결책”이 “나토식”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가 나토에서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이 유럽과의 동맹을 더 우선시한다는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국방부의 장관의 “인도-태평양은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전장이다”⁵ 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미국과 나토가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를 오랜 기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논의에 참석한 경험이 많은 발표자는 확장 억제에 대한 공개 논의가 동맹간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적들에게 그러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수반된다고 지적하면서, 확장 억제에 있어 유럽 모델이 더 낫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변화는 미국이 군사적 대결에 우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위 ‘전략적 부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발표자는 아시아가 나토 모델을 모방하기 보다는 새로운 장관급 안보 메커니즘 설립해 핵 관련 정책 기획은 아니더라도 동맹간 계획, 훈련 및 역량 상황을 검토하는 등 보다 포괄적이고 상위 단계의 지침과 검토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기존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전략적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³ 미국 평화 연구소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공동 안보를 위한 대비: 국방전략위원회의 평가와 제언 (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2018 년, vi 페이지.

⁴ Ashley Townsend 외, “위기의 모면: 미국의 전략, 군사비 지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방어 (Averting Crisis: American Strategy, Military Spending and Collective Defense in the Indo-Pacific),” 미국학 센터 (The United States Studies Center), 2019 년 8 월 19 일, 2 페이지.

⁵ “국방 장관으로부터의 메시지,” 미국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 리포트, 2019 년 6 월 1 일.

나토와 동북아 동맹과의 비교는 매년 이루어지지만 참가자들은 올해 과거보다 더 회의적이었다. 항상 그렇듯이 미국 참가자들은 아시아 참가자들에게 유럽 모델의 어떤 부분을 모방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미-나토간 핵 협력에 대한 오해도 존재한다. NPG (Nuclear Planning Group) 이라는 명칭 때문에 동 기관이 실제로 핵 관련 정책을 계획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몇몇 유럽 국가들은 자국내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는 아시아의 확장 억제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서와 같이 양자 협의가 다자 협의보다 심층적이고 쉬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 동북아 참가자들은 유럽 모델보다 동북아 모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여전히 위기시 미국이 안보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동맹국간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북한이 1 세대 미사일 방어체계를 침투할 수 있는 기동성 탄두와 중국이 핵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등 역내 전략 계산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역량들을 획득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우려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한 일본인은 “일본이 직면한 핵 관련 위협이 고조되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했다. 한 미국 참가자는 이로 인한 안보위협 인식의 제고는 핵 억제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동맹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효과적인 확장 억제는 단순한

핵 억제 이상을 의미하므로, 동 관련 논의는 동맹국들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일본 참가자는 중국의 재래식 역량 강화를, 한 한국 참가자는 비군사적 대응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현존하는 확장 억제 협의 메커니즘이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동맹국이 억제에 관한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동맹국의 갈등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더 크다. 둘째,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동맹국들은 “두 번째 트랙,” 즉, 적의 무기 시스템 배치를 막기 위한 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것은 어떤 국가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동 논의의 근본적인 전제는 삼자 협력이 효과적인 확장 억제의 열쇠라는 것이다. 그런데 삼자 협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곤경에 처해있다. 동 회의는 한일간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졌다가 급기야 한국의 군사 정보 협정 (GSOMIA) 파기 위협으로까지 이어진 이후에 이루어 졌다.⁶ 한일 갈등의 파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⁶ 막판에 한국 정부가 GSOMIA 를 파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잠정적 유예로

한일관계의 향상, 특히 일본 정부의 노력을 조건이 달려있다.

존재했으나 중론은 양국간 정치적 갈등이 전략상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었고, 또한 한일 갈등의 영향이 양자 관계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참가자들과 일부 미국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듯 하다고 우려했다. 완곡한 표현으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개입시키기 위해 전술적인 측면을 조정하고 있으며 남북 화해 및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유대를 약화하고 있으며 중국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직설적인 주장도 워싱턴과 도쿄에서 종종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안보 전략가들사이에서 점점 중국을 위협과 간주하고 그에 따라 준비를 갖추려는 태세가 갖추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INF 조약 파기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미국 참가자들은 미국이 중국 미사일 비축 증대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동 결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행동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될 미사일은 핵미사일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미국 핵 미사일의 재도입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근거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재래식 미사일 배치 입장을 지지했다 (동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세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졌다.)

국가 안보 전략

전 세션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개념적 틀을 마련한 후, 각 국의 향후 5 년간 국방전략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미국의 발표자는 국방예산 증액에 상한을 두는 예산 자동 삭감 조치 (sequester)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 예산이 매년 약 7,700 억 ~ 7,900 억 달러에 머무를 것이며, 그 중 상당 부분(2015 년 이래 총 약 5 천억 달러)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에 투자되었지만, 인건비로 인한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화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표자는 핵잠수함 (SSBN)이 축소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교체 되더라도 핵 삼원체제 (triad)의 유지 보수 및 현대화는 미국 국방의 우선 순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요격 플랫폼의 생존을 중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미 해군이 수륙 양용 전력, 고급 탄약 획득과 더불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래식 지상 기반 요격 능력의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방 전략의 “하나의 전쟁 구조 (one war construct)”가 투자 양상을 결정할 것이며, 발표자는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유연성을 기대했지만 “capability”과 “capacity”간의 충돌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재래식 능력이 축소했다는 미국학 센터 (US Study Center)의 평가하며, 중국이 세계에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 전략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상에서 미중 양국 경제를 분리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진 해외 자본의 미국 유치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개혁을 주목하면서, 미국이 기술 개발 및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도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작전 개념 개발, 세력 투사의 분배, 합동 타격 프로그램 등과 같이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역내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 전체에 걸친 인프라 개발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에 초점을 둔 미국 전략에 있어 미일 동맹은 계속해서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동 계획을 완성하고, 새로운 명령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동맹의 틀을 설립할 것이다. 발표자는 일본이 미국에게 자국 기지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양국 군이 공동 육지 기반 요격 공격 훈련을 진행하고 일본 남부 섬들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간 방위비 협상이 완료된 후 한미 동맹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어에

보다 집중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규모는 축소될 것이지만 20,000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는 2023 년에 완료될 것이고,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발사단계 미사일 방어를 배치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첩보, 감시 및 정찰 (ISR) 역량에 상당한 자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일본 국방 계획에 대한 평가는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영역 작전을 추구하는 국방계획지침⁷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려스럽게도 일본은 더 이상 분쟁시 항공 및 해상 분야에서 확실한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지만 다영역 작전을 통한 전반적 우위를 추구한다. 이는 동맹간 연합성을 향상시키고 연합 작전 사령관을 위촉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일본은 제 2 열도선에 중점을 두고 대함 및 ISR 역량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가 Aegis Ashore 과 같은 고정 지상 기반 플랫폼과 준 항공모함 같은 구식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인 것으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⁸

동 발표자는 다른 발표자들과 유사한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북한이 여전히 주요 위협이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개발은 문제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확장 역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는 동맹 방어를 위한

⁷ 2018 년 12 월 18 일 국방부 국방계획지침.

⁸ 모든 일본 참가자들이 이러한 구매에 대한 비판적인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의지로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기고가 확장되면서 “A2AD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바, 발표자는 중국 해안 경비대와 육군간의 협력 및 중국의 “회색 지대”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도전에 대한 우려의 나타냈다. 그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증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동향이 향후 5 년간 지속될 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일본측 발표자는 미일 동맹이 견고하다면서도, 동맹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보다 광범위한 동맹 협력과 부담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2021 년에 완결될 방위비 협상이 순탄치 못하게 진행될 경우 동맹에 대한 인식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남서쪽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 회의를 일본이 페르시아만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자위대 자산을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었는데, 발표자는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원거리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국토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한국이 GSOMIA 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삼자 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적이었다. 그는 동 조약이 양국간 정보공유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양국간 협력 정도를 측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내 전문가들사이에서 전작권과 주한미군의 미래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영역 전투 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노력이 한미일 삼자협력을 증대시킬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수렴될 수 있는 점도 시사했다.

한국측 발표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 국방개혁 2.0 등 다양한 국방 계획을 언급하면서 한국군의 개혁 및 현대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우선 순위는 여전히 외적으로부터의 방어, 통일 지원 및 지역 평화와 안정이다. 그는 한국의 국방정책이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한국이 강대국간 경쟁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질서 와해를 막으려는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 질서 잠식 시도에 대한 대응 등 중대 문제 해결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비대칭 및 A2AD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적인 다용도 플랫폼을 개발하고 군민 관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두 나라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 회의동안 현 미국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발표자는 ISR, 비살상무기 및 미사일 방어체계에 할당된 한국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국방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 제고, 탄력성 증대, 동맹 임무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기인한 것이며, 차기 행정부들이 이러한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는 진보, 보수에 상관 없이, 문재인 행정부가 기술 개발의 장점과 영향을 과도하게 선전하고, 육해공군 협업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그들간 영향을 재분배하는 데 과도하게 집중했다는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조짐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측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동맹간 협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또한 문재인 행정부가 국방과 외교 사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개혁이 미국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만, 미흡한 전략적 의사 소통 및 실무 레벨 작전으로 인해 동맹 관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진행하는 상황에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한미동맹이 한국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에 있는 전투사령관들과의 의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동맹은 변화해야 한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고, 통제력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와 영향력에 기반한 새로운 스타일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일 중국이 한국을 위협할 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협력은 양자이던 삼자이던 정치화될 것이다. 역제는 여전히 한국 및 한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지만, 일상적인 국방 및 외교 활동과 더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동 토론은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한 한미 연합훈련 규모의 축소가 동맹의 전시 대비태세 및 한반도내 미국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한 일본인 참가자는 새로운 "Acheson 라인"이 생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미군 감축이 중차대한 일이라는 하나, 감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므로 주한 미군의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회의동안 한미 동맹에 대한 현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지니고 온 동맹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 우방들이 동맹관계를 무역 협정에서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 악용한다는 믿음, 또한 방위비 협의 관련 분쟁 등을 반영한 것이다. 양측은 방위비 관련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공평한 비용 분담이 얼마인지, 특히 한국이 전략적 자산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바는 없다. 한국 참가자들은 경항공모함에 10 억 달러를, 또 다른 항공모함에 10 억 달러, 전투기 F35B 에 10 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주목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한미 동맹이 핵심이라는 인식과 국방기여도를 높이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한 일본측 참가자는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 국방예산의 80 %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목표 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비쳤는데, 이는 한일간 긴장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것이다. 한국 참가자들은 일본과의 우호 관계 및 삼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GSOMIA 를 종식시키려 한 점에 비추어 한국의 이러한 의지가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한국 참가자들은 정보 공유는 삼자 정보공유조약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이에 명백하게 반대했다.

토론은 또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일본 참가자들은 중국과의 세력 경쟁에 중점을 둔 미국의 접근을 환영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일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중국은 그들에게 지리적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서, 중국과의 외교와 개입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미중 갈등이 일본의 경제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미일 양국이 서로 정치경제상 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의 정책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나리오 1 단계

예년과 같이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동북아내 가상 핵위기에 대해 한미일 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이었다. 올해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 면에서 이전 것들과는 달랐다. 올해는 1 단계에서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하면서 위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기존에는 중국이 주요 역할을 맡지 않았을 뿐더러 초반부터 등장하지도 않았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해역 근처에서 불법으로 선박간 물품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감시하고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공격을 받고 그 대응으로 한 잠수함을 공격했다. 한편 KADIZ 에서 현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한국의 감시 항공기가 중국군 전투기와 충돌하여 실종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 준비를 시작한다. 북중 관계가 현저히 개선되면서, 중국의 무력

시위도 심화되고 있다.⁹ 각 팀은 다음 질문에 대답했다.

1. 귀 팀은 동 시나리오를 어떻게 요약·설명하시겠습니까?
2. 귀 팀이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개의 외교 조치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3. 귀 팀이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개의 군사 조치는 무엇입니까?
4. 귀 팀이 다른 동맹국/파트너들에게 각각 가장 바라는 바 다섯 가지는 무엇입니까?
5.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6. 중국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일본팀은 중국과 북한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이러한 사건들의 발생 경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외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 삼자 국방 회담 (Defense Trilateral Talks)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것을 확인한다.
2. 중국에게 국제법 준수를 호소하고, 특히 사건 발생 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조치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북한에게 도발을 지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
4. 자국 군함이 먼저 공격을 받은 바, 동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

5. 한국의 인명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가지의 군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공격 선박 근처에서 대잠수함 전투 (anti-submarine warfare) 작전을 시작한다.
2. 한국의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지원한다.
3.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공격 주체를 식별한다.
4. ISR 역량을 강화한다.
5. 탄도 미사일 방어태세를 격상한다.

한국으로부터는 GSOMIA 를 통해 해상자위대에 대한 공격 관련 정보와 북한 활동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미국에도 이와 같은 정보를 요청하고, 또한, 이지스가 장착된 전함을 일본해에 파견하는 등 일본의 수색 및 구조, ISR, 탄도 미사일 방어 등 작전을 지원해 줄 것과, 동중국해 관련 첩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일본은 북한에게 모든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인명 구조 및 해상자위대에 대한 공격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한 도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중국에게도 관련한 모든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일본은 사건 당시 일본의 선박이 중국

⁹ 시나리오 전문은 부록에 첨부되었다.

영해에 있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자국 전함이 공격받은 상황에서 일본은 동시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 일본측 참가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소 일상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미국 참가자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해상 경비대 능력을 증가하는 해상안전작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동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는 상황이므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 사건이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중국 정부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시했다.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해상자위대 군함과 선원들의 안전이며, 미사일 발사가 아닌 일본 군함 폭침이 안보리 토론의 초점이 될 것이다.

미국팀에서 관건은 바람직한 대응책이 강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인지하는 점이었다.

미국팀의 내러티브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역내 질서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중국이 공조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팀은 이례적이긴하나 미국 대통령에게 정책 제언을 하기 전에 동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취할 외교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우선 조치 순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다).

1. 일본 잠수함과 한국 항공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한다.
2. 유엔안보리의 지지를 획득한다.
3. 중국이 동 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4.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5. 우방국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 안보 성명서를 발표한다.
6. 한일 정상들과 대화를 가지며 안보 보장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즉각적으로 취할 군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의 자유” 작전 (Freedom of Navigation)을 지속한다.
2. 분쟁중에 있는 방공식별구역 (ADIZ)에 연합 순찰 전투기를 파견하고 해상자위대 선박을 호위한다.
3. 공격잠수함을 광과 하와이로 이동 배치한다 (우방국 대중이 아닌 정부에만 통보한다).
4. 합동 대잠수전 (anti-submarine warfare) 훈련 등 삼자 연합 훈련을 고려한다.
5. 미사일 방어체계 자산을 크게 증대시킨다.
6.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실시한다.

7. 동맹국 피격시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차 강조한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삼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원격 및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대잠수전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위 “화염과 분노”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대만, 홍콩,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지양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러시아에게도 기회주의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미국팀에서 관건은 바람직한 대응책이 강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관리해 확산을 막는 것인지 하는 점이었는데, 결국 중국과 북한이 역내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고 확신해 전자를 선택했다. 미국인들은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도발을 지속할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결의를 실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안보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팀은 중국에게 국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과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을 활용, 국제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팀은 또한 삼자 공동 성명이 한미일 동맹을 효과적으로 "재결합

(recoupled)"할 수 있다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팀들은 미국의 반응에 의해 안심을 표했다. 일본 참가자들은 두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 참가자들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삼국 협력에 대한 중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미국 항공 모함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참가자들간에 이견이 있었다. 일부는 수색 및 구조 노력을 지원하고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파견을 환영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이상의 도발이라고 보았다.

한국팀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대응했다.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가지의 외교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을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정보 공유,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공동 작전을 추진하고 중국과 북한에게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도록 협의한다.
3. 일본에 정보 공유 의지를 피력하고 피격된 일본 선박에 도움을 제공하는 등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한다.
4. 북한에게 도발을 멈추고 남북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촉구한다.
5.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유엔에서 중국의 행위를 지탄한다

그리고 다음 다섯 가지의 군사 조치를 취한다.

1.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실시한다.
2. 한반도 경계태세를 격상시킨다 (단, DefCon 이 아닌 WatchCon 변경)
3. 황해 함정의 준비태세를 격상한다.
4. 미국 및 일본과 정보를 공유한다.
5. 일본 및 미국과의 삼국간 동맹 협력을 증진한다.

한국팀은 미국에게 수색과 구조를 위한 자산 제공 및 안보리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과의 확전 방지, 북미간 직접적 대화, 한미일간 삼자 협력 강화 등을 당부할 것이다. 일본에게는 중국의 위협에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 중국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 북한의 확전 및 도발 방지 노력에 기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팀원들은 동 시나리오가 심각하고 위협적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미국팀이나 일본팀과는 달리 이 사건을 역내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한 일본 참가자는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뿐 서로 무관한 것이 맞다면, 중국이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입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는 이 시점에서 가열되었다. 한국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먼저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GSOMIA 를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들은 TISA 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참가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한 일본 참가자는 TISA 가 핵 사고나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정보 교환에만 적용되고 북한의 정박선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시 한번 한국 참가자들은 GSOMIA 의 과거가 정치적인 성격의 것일 뿐 한일 한일간 전략 관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정치적 분리가 전략적 분리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상훈련 2 단계

중국은 상하이 인근 바다에서 실종된 잠수함을 수색하는 작업에 모든 국가를 배제하려고 한다. 중국은 핵전력을 동원하고 미국과 미국의 우방들을 비난한다. 북한은 연평도를 점령하고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킨다. 이번 단계에서는 가상 훈련 1 단계나 이전 회의와 달리, 참가자들이 미일 및 한미 두 동맹 팀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했다.

1.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 시점에서 중국의 우선 순위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2.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 시점에서 북한의 우선 순위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3. 현재 귀 동맹의 5 가지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4. 다른 동맹에게 즉각 요구할 5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5. 다른 동맹들이 지양해야 할 3 가지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미동맹팀은 동 시나리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중국이 지역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광범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 A2AD) 전략을 통해 지역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미국 동맹 체제를 깨뜨리려고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팀은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실종된 잠수함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인데, 이는 A2AD 전략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팀은 북한도 유사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북한의 의도는 한미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것이다. 북한도 역시 역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핵 미사일 발사는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한반도상 군사력의 균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북한은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침략하거나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에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한미동맹팀의 5 가지 우선 순위는 1) 탐색 및 구조 작업 지속, 2)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연평도 공격 및 점령 강력히 비난, 3) 북한과 전면전으로 확전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연평도 반환, 4) 중국과의 갈등 회피, 5)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과시 (이는 미국이 지원하에 한국이 주도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는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에도 비용을 치르게 하기

위해 황해에 항공모함전단 (carrier strike group)을 배치하는 것이다.

미일동맹에게는 정보 공유, 유엔사 하주일 미군 동원, 일본 정부의 강력한 북한 지탄, 유엔사 소속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자제해 줄 사항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군사 작전 직접적 개입, 유엔사 동원에 대한 방해, 사전 협의없이 북한 핵시설 타격 등을 언급했다.

한미 동맹 대응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는 항공모함전단을 황해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긴장고조 (escalate to de-escalate) 작전의 일부로 간주되는 동 정책은 또한 중국의 A2AD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대응책이다. 이 작전은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의 결의를 표명하며 연평도를 되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목표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굳은 결의를 표명하는 것은 동시에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확전을 피하려는 희망과 결의 표명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논리가 항상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때에 간혹 전략 자산과 핵 자산을 구분하기도 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 국제 해역에서의 핵폭발은 이를 핵무기 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험으로 볼 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 참가자는 핵실험도 핵무기 사용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1 단계 토론에서 핵무기 사용이 북한의 정권교체의 구실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예년의 토론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번 단계에서 핵폭발은 “A2AD의 일환”이자 대응을 요구하는 핵강압 (nuclear coercion) 정책으로 간주되지만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미국 참가자들은 핵무기 이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핵무기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며, 한일 참가자들에 의해 반복해서 경고한 바와 같이 양국이 미국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바, 미온적 대응은 동맹국들의 역량 및 동맹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은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할 경우,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보복할 경우, 한반도가 살 수 없는 정도로 오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중간의 경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미일동맹팀은 한미동맹팀의 중국 의도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고, 동 시나리오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동북아내 미국의 안보체계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며 중국과 북한이 공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했다.

5 가지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한미일 정부가 협력하여 이 두 건의 위기를 동시에 해결한다.
2.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한다.

3.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의 결의를 입증한다.
4. 실종된 선원 수색 및 구조 작전을 합동으로 수행한다.
5. 핵무기 이용을 억제한다.

한미동맹측에 요청할 사항은 한미일간 정보 공유, 독자 행동 또는 일방적 행동 지양,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동 성명 발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동, 비전투요원 대피 작전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등이다. 한편, 무의미한 **확전** (미일동맹팀측 강조 사항),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양쪽에 쓸 수 있는 항공기 (dual-capable aircraft) 한국 배치, 중국과의 **확전** 등은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일동맹팀은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이 동맹을 방해하고 역내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중국의 야심이라고 밝히고, MD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두 동맹국간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간주되었다. 미일팀이 언급한 "무의미한 확전"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필요하지만 위험한 조치와 불필요하면서 공격적인 조치들을 구분하고,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후자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핵태세 변화에 반대하고,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도 "의미없는 확전"에 속하는 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상훈련 종료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는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 번째는 참가자들이 핵 시그널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¹⁰ 북한의 도발이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아무도 북한이 핵 위협에 의해 억제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¹¹ 진짜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무력 도발 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국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위기 발생시 중국이 비대칭적 이익을 더 많이 획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확전을 꺼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명확하게 묻는다면 “왜 적국들은 그들의 확전 위협이 미국의 확전 위협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믿는가?”) 여러 참가자들은 현 미행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태세를 불확실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같은 논리로 적국들이 계산 착오로 인해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행히도,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 의해 억제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미국 참가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에 집중할 필요성도 상기시켰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no first use” 정책이 관련 있다. 만일 중국의 이러한 선언이 진실된 것이라면, 미국과 우방들은 그들이 우세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진실성이 있는지에 관해 회의론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지도부가 군사적으로 패배할 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힘의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믿기 어렵다.

일본은 중국으로 하여금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 중국이 국방에 지출을 늘릴수록 그만큼 일본을 위협하는데 드는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도 시그널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적들에게 나약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의도를 보내는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적국이 미국의 결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어려워진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의 안보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사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미국의 조치만으로는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적국을 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본 및 한국 참가자들은 두 동맹팀의 답변에 만족했다. 적국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해석이

¹⁰ 중국의 행동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에 포함된 전체 시나리오 확인 요망.

¹¹ 예년과 마찬가지로, “demonstration shot”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

참가자들은 그것이 나약함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수렴되었으며, 동맹들이 취한 행동들이나 서로에 대한 요구 사항들 중 상충되는 부분이 없었다.

미사일과 동북아시아

동 회의를 미국이 미-러시아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지 몇 주 후에 개최되었다. 미국의 조약 파기 결정은 기본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러시아 부정행위의 결과였지만, 중국 미사일 무기고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볼 때 동 조약의 파기는 강대국간의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일본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전략가들은 동북아 지역내 미사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동 회의를 중 한 일본 발표자는 미사일 관련 의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국도 우려되는 국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상 기반 미사일이 더 저렴하고 크기의 제약을 덜 받으며, 속도가 빠르고 관통성도 높은 등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의 공중 전쟁의 특징이 보다 정확한 미사일, 스텔스 기술 및 무인 시스템인데,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으로 하여금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국방에 지출을 늘릴수록 그만큼 일본을 위협하는데 드는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일본은 탄도 또는 현재 연구 개발중인 초음속 미사일, 대함,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거나 타국의 것을 일본 영토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대함을 폭격하고 중국의 공중 전력 우위 획득을 저지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한다면, 현 일본 정부가 "전략적 결정 유예"를 정책 기조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어차피 일본에 아직 초음속 기술이 없는데다, 미국도 자국의 육지 기반 요격 시스템을 일본에 배치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결정은 일본 국민, 미국, 그리고 적대국 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내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전략가들이 미국의 신형 미사일 개발 결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유사하게, 한국 발표자도 탄도 미사일이 한국 킬체인 시스템의 필수 요소이며 미사일의 범위를 확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환영하며 고무적인 자세를 취했다. 핵심 결정사항은 신형 시스템이 가치를 창출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중점을 둘 것이며, 그러한 결정은 동맹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발표자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 이익이라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동맹간 방위 분담은 재조정되어야 하고, 한미간 전투 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 개발과 연습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방위비 분담 관련 양국간 분열이 극명했다.

INF 조약의 파기는 한국에게 기회이다. 미사일 제거 및 축소를 위한 새롭고 더 많은 회원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물론 확실한 검증 조치를 필요로 한다.) 한국 전략가들은 미국이 동북아 내에서 군사적 우월성을 지속하는 것이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위기시 적국들이 도발할 동기를 약화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한다. 다만 새로운 체제가 구축된다면, 공격적인 시스템은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켜 불안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방어적인 체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 발표자는 INF 조약이 파기된 이후의 환경이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면 (이는 미국이 아직 논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중국이 비난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이 더욱 전방 배치될 수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의 가치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문재인 행정부는 미국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제거에 방해물이 될 것으로 여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징” 전략을 이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인데, 이는 이 전략이 모호한 시그널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측 발표자는 러시아가 수년간 INF 조약을 위반했는 바, 트럼프 행정부가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은 지지했으나, 탈퇴 과정에서 동맹국과 사전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동 발표자는 현 상황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역내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전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했다.

미 국방 장관은 아시아에 새로운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고 싶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동 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철수한 지 며칠 만에 새로운 육지기반 요격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미사일을 동북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내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Tomahawks, JASSM, LRASM,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 초음속 및 Pershing 2s 와 같은 시스템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미국의 우방들은 곧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동 발표자는 이 과정이 우방국내 미국 미사일 배치에 적대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 메시지들로 인해 사안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 발표자는 두 가지 요점으로 결론을 내렸다. 첫째, 미국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미사일 배치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동북아에 핵무기를 전방 배치하지 않는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 둘째, 아시아내 동맹국들이 타격 능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나 이러한 자산을 아시아 국가들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지 또는 미국의 자산을 역내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미국과 우방의 무기에 대한 제한과 동시에 역내 적들의 미사일 능력 제고에 따라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견해에 이견이 없었다. 미국 미사일은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오래된 것인바 전방 배치될 경우 만만하 타깃이 될 수 있다. 한 참가자가

언급했듯이, 미국은 수량과 품질면에서 적들보다 뒤쳐지고 있는데, 중국 국방 능력의 현대화는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국 미사일 배치는 적으로 하여금 국방에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기존 자산을 다른 임무를 위해 할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고려할 때, 수중 기반 보다는 더 빠르고 비용이 낮은 육지 기반 미사일 배치가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북아내 미사일 배치 장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한일 참가자들은 국내 여론이 그러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일본 참가자들은 미국 계획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산재해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미사일 배치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핵미사일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일본 대중들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또한 INF 조약에 관해서도 일본 대중들은 먼저 조약을 철회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대중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군축 문제도 동시에 다루는 이중적 접근을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참가자들은 그 논리를 인정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기 통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간 미국의 중재 혹은 주최하에 미사일 관련 전략적 대화를 할 것을 제안했다.

대중이 허락한다면 일본과 한국 전략가들은 그런 대화를 하고자 한다. 그들은 미국의 의도 및 전방 배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고자 다음

질문들을 던진다. 전방 배치는 시그널링, 비용 부과 혹은 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협상 카드인가?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방국의 자체 능력이 미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미국은 동북아 우방들과 공동으로 역량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방들은 자체적 미사일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0 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타격 옵션”에 대한 일본의 논쟁은 지난 몇 년 동안 더 가열되었다. 일본의 한 참가자는 일본 국방프로그램 지침 (NDPG)이 해상 및 상륙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원격 화력 및 기타 필수 능력의 획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측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공격 미사일 기능을 연구하고 배치해 왔다.

동 회의는 한국의 전략가들이 모든 잠재적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 참가자는 한국 국방 백서가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 참가자는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중국을 한반도 위기시 개입하거나 심지어 침략하는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했다. 일본 참가자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반색을 표했지만, 한 일본 참가자는 한국의 공격력이 중국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또한 한국측이 투명성 결여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결론

늘 그렇듯이 확장 억제 전력에 관한 논의는 솔직하고 면밀하며 탄탄해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폭 넓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중 다수는 양자 정부간 공식적인 억제 논의에도 참석한다). 올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동북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미일, 한미 동맹에게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적대국으로부터 요구되는 상충되는 중요 요소들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북아내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재래식 무기에서 핵 무기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력의 일부로서 재래식 역량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며, 동맹간 상호 운용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 상호 운용성은 그 자체가 적국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억제 (deterrence) 능력으로 삼자 협력의 가치와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신기술은 이러한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인 바, 일부 기술의 배포는 앞으로 수 년이 걸릴 예정이지만, 안보 계획자는 기술 발전의 추이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각국의 재정 상황에 의해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더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위기시 군사 태세와 군사 대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사 문제와 동맹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다. 각국의 안보 관련자들은 동맹 및 삼자 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를 공언하지만, 각국 정부는 항상 다른 두 파트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동맹간 정치적 디커플링을 초래해 전략적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

추신

6 차 확장 억제 회의 이후 퍼시픽 포럼의 선임 요원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안보 전문가들을 만나 동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동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에 대한 평가를 구했다. 이러한 브리핑은 회의에서 얻은 의견과 결론을 교차 점검 할 수 있는 기회로,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이러한 브리핑은 동 보고서에 포함된 회의 결과를 재확인했다. 한일 양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양국간 및 삼국간 협력을 저해하는 정치적 문제를 지탄하고 한일간 대화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한일 정부인사 및 전문가들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브리핑 실시 직전 시리아내 쿠르드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심화되었다.

한일 양 정부는 미국에게 한일 대중으로부터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국 정부내 동맹지지자들은 미국의 도움을 원했는데, 때로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미 행정부가 동맹과의 협력을 거래로 간주하는 협상 스타일에 의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의는 한국 정부 및 대중으로부터 분노를 자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영토에 중거리 미사일을 전방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아주 낮다.

서울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에게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고,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한다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인사들은 정치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서 일본측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던 한국의 안보 인식, 즉 한국이 중국 등 한반도 외 세력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서울에서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들을 내렸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인사들과 전문가들도 미국의 방어 의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미사일 갭”에 주목하면서 문제는 단지 중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불행히도 일본 여론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배치를 꺼리고 있는바, 미국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고심하고 있다. 그들은 미일 양자 동맹의 장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나토 스타일의 핵계획그룹 (NPG) 설치의 불필요하다고 여겼지만, “보이지 않는 억제 자산”의 배치하는 것이 국내 여론의 반감은 크지 않으나 적들에 대한 시그널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할 태세를 갖춘 것을 환영했지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태도에 의해 역내 위기 발생시 미국의 작전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측 인사들은 GSOMIA 를 무용화하고 과거사에 묶여 양국 관계를 해치는 한국 정부의 결정들에 분노를 표했다.

Brad Glosserman 은 타마 대학교,
규범수립전략센터 부 디렉터이자

첨부 A

한미일 3자 전략적 대화
로얄 라하이아 리조트, 마우이,
2019년 9월 4-6일

일정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오후 6:30 리셉션 및 회 만찬

2019년 9월 5일 목요일

8:00 AM 아침 식사

9:00 AM Bob Girrier 개회사

9:15 AM **세션 1 : 동북아시아 확장 억제**

확장 억제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현재 확장 억제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INF 조약 파기와 같은 새로운 난제가 등장했습니까? 한미일 삼국이 역내 억제 정책 강화를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취해야 할 조치와 취하지 말아야 할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의장: Brad Roberts

10:45 AM 커피 브레이크

11:00 AM **세션 2 : 향후 5년간 국가방위전략**

각국의 발표자는 자국의 향후 5년간의 동북아 국가 방위 전략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안보 위협은 무엇이며 어떤 안보 위협을 우선시합니까? 국방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며, 그것은 전력 배치 및 태세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상기 대답들을 수정할만한 한 새로운 사건이 생긴다면 어떤 것입니까? 귀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미국측 발표자의 경우, 각 동맹국과의 관계)? 교차 동맹 (cross-alliance) 관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혹은 두 동맹과 동맹국들은 어떻게 상호 작용합니까)? 귀국의 방어 태세는 어떠하며 억제는 그 계획에 잘 맞습니까? 동북아는 인도-태평양 국방 태세안에 잘 들어 맞습니까?

의장: Eric Sayers

발표자: Tetsuo Kotani (일본), 최석훈 (한국)

- 12:30 PM TTX 브리핑 (Brad Glosserman)
- 12:45 PM 세션 3 : 그룹별 점심 식사 및 TTX 1단계 질문 답변 준비
- 2:45 PM 세션 3A: 본회의 - 1단계 평가
각 그룹별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론 도출 과정 발표 및 질의 응답
의장: Brad Glosserman
- 5:00 PM 휴회
- 6:30 PM 만찬

2019 년 9 월 6 일 금요일

- 8:00 AM 아침 식사
- 8:30 AM 세션 4: 그룹별 TTX 2단계
그룹별 2단계 질문 답변 준비
- 10:15 AM 커피 브레이크
- 10:30 AM 세션 4A: 본회의 - 2단계 평가
각 그룹별 2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론 도출 과정 발표 후 질의 응답
의장: Brad Glosserman
- 12:30 PM 점심 식사
- 1:15 PM 세션5: TTX 마무리
- 3:15 PM 커피 브레이크
- 3:30 PM 세션 6: 미사일과 동북아시아
각 국의 발언자는 미사일 타격 능력 제고의 중요성 관련 다음 질문들에 대한 각국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각 정부는 INF (Intermediate Nuclear Forces) 조약 폐기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동북아내 국가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미사일 역량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중거리 미사일 군축을 위한 새로운 조약 체결에 대해 어떻게 전망합니까? 귀 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또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합니까?

발표자: Sugio Takahashi (일본), 김지나 (한국), Elaine Bunn (미국)

5:00 PM

세션 7: 결론 및 차기 회의를 위한 대화

대화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결론 분석 및 삼국간 안보협력을 위한 조치와 차기 회의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한 토의

5:00 PM

휴회

첨부 B

한미일 3자 전략적 대화
로얄 라하이아 리조트, 마우이,
2019년 9월 4-6일

참가자 리스트

일본

1. **츠요시 고로쿠**
국제정치경제 강사
니쇼가쿠샤 대학
2. **이가타 아키라**
방문교수
타마 대학
3. **고이치 이토**
총영사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
4. **켄타로 카이하라**
미-일 안보조약과장
일본 외무성
5. **요이치 카토**
선임연구원
아시아 태평양 구상
6. **테츠오 코타니**
선임연구원
일본국제정세연구원
7. **마사히 무라노**
일본 석좌 연구위원

허드슨 연구소

8. **마사노리 니시**
니쁜 생명보험 수석고문
국방장관 고문
9. **타케츠구 사토**
수석 국가안보통신원
아사히 신문
10. **스기오 타카하시**
정책시뮬레이션과장
국립 국방연구연구원

한국

11. **차두현**
방문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12. **최석훈 (Paul Choi)**
수석 고문
StratWays 그룹
13. **전일범**
퇴역 장군
대한민국 육군

14. 김준구
총영사
호놀룰루 영사관

15. 김지나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16. 김원집
한미안보협력과 2 등 서기관
외교부

17. 이광석
한미안보협력과장
외교부

18. 백학순
소장
세종연구소

19. 신성호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20. 손한별
조교수
국방대학교 군사전략과

21. 송선영
영사
호놀룰루 영사관

미국

22. Douglas ACOBA

차석
주한미군 J5 전략정책과

23. Diana BRADFIELD
국무부

24. Elaine Bunn
프리랜서 컨설턴트

25. Victor Cha
조지타운 교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26. Ralph Cossa
WSD-Handa 평화연구 석좌
퍼시픽 포럼

27. Donald Cribbs
부장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 (DTRA)

28. Brent Feller
인도태평양사령부 반 WMD
기획가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DTRA)

29. Robert P. Girrier
회장
퍼시픽 포럼

30. Brad Glosserman
선임 고문
퍼시픽 포럼

31. Heather Kearney
전략기획가/분석가

전략사령부

32. Mark Knapper
한일 부차관보
국무부

33. Tom Le
정치학 부교수
포모나 대학교

34. Grace Park
일본과장
국방부 장관실

35. Crystal Pryor
프로그램 디렉터 및 연구원
퍼시픽 포럼

36. Brad Roberts
국제안보연구센터장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37. Eric Sayers
객원 선임 연구원
신미국안보센터 (CNAS)

38. Shane Smith
선임연구원
국방대학교

39. Scott Snyder
한국학 선임연구원
외교협회

40. Demetrius Walters
핵안전성과장
국방성 위협 감소기구 (DTRA)

41. Anton Wishik
외교정책 고문보
인도태평양사령부/국무부

Young Leader

42. 안종화
코리아 파운데이션 비상임 연구원
퍼시픽 포럼

43. Darcie Draudt
정치학 박사 과정
존스홉킨스 대학교

44. 김동현
코리아 파운데이션 비상임 연구원
퍼시픽 포럼

45. Grace Kim
연구원
전략예산평가센터

46. 김세영
아시아학 석사 과정
조지타운 대학교

47. Kirara Nakamura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
콜롬비아 대학교

48. Alex Shykov
켈리 연구원
퍼시픽 포럼

퍼시픽 포럼 직원

49. Jesslyn Cheong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퍼시픽 포럼

50. Thuy Nguyen

개발 매니저
퍼시픽 포럼

51. Ariel Stenek

영리더 프로그램 디렉터
퍼시픽 포럼

첨부 C

한미일 3자 전략적 대화
마우이 로얄 라하이아 리조트
2019년 9월 4-6일

TTX 1 단계
2019년 9월 5일 마우이

2019년 가을, 북미 핵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이 전과 유사한 편지를 받았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는 추가적인 핵 협상은 없었다. 북한은 전쟁 종식 선언과 평화 조약,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종식, 모든 제재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하면서, 이 사항들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의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세력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합동 군사 훈련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했지만, 북한이 핵 자산을 제거 할 때까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남북간의 대화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남한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촉구했지만, 이산 가족 상봉, 양국 간 군사 협정 이행, 정상 회담 등의 양국간의 교류는 없었다. 북한은 또한 경제 제재를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전쟁의 확장"이라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의 제재 참여 중단을 요구했다.

북중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회의를 대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정은은 몇 주 전에 베이징을 잠시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났다. 김정은의 귀국 후 북한 언론은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영도 하에서 불굴의 북중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발표했다. 양국간 군사 협력도 북한 매체에 자주 등장나고 있으며, 일부 중국 매체들도 양국 군사 관계자들간의 회의를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이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 북한은 다수의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무적의 새로운 초현대적 군사 능력”을 지향하는 북한의 미래지향적 군사 태세의 일환이다. 또한, 북한은 공격적인 수륙양용 작전과 육군 전략 자산 동원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진전된 바가 없다. 일본은 고위급 대화에 응할 의지가 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는 최근 수 년중 최악 수준에 머물렀다. 양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으나 (절차는 변경되었지만 한국으로의 선적이 중단되지 않았다), GSOMIA는 갱신되지 않았고 양국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측구에 주목했지만, 그는 한국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 협상 또한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에 의해 중국이 약화되고,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모든 무역에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트럼프의 결의를 시험하기 보다는 차기 미국 행정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최고 수위의 “항해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몇몇 선박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중국의 중국 영해 진입에 대한 경고는 점점 날카로워졌으며, 중국 해군 함선에 의한 공격도 발생했다. 미 해군 함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했던 경우도 한 차례 발생했다.

위기

상해 동쪽 황해 해역에서 한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 옆에 있는 작은 선박이 불법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당시, 중국 당국은 동 일본 선박이 중국 해역에 있다면서 즉각 그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동 선박은 중국 해역이 아닌 공해에서 정기 순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교신 직후, 동 일본 선박이 폭발에 의해 흔들렸다.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의 수중 음파 탐지기가 잠수함 한 정을 감지하고 어뢰를 발사했고, 이후 해상자위대 선박이 잠수함을 공격해 수중에서 폭발시켰다. 동 선박은 손상되고 여러 명의 승무원이 부상당했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후 일본 항구로 귀환했다.

한국 감시 항공기가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순찰중 동 일본 선박 및 북한 선박이 선박간 불법 운송을 하고 있는 정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 때 한 중국 전투기와 접촉했는데, 동 중국 전투기는 한국 항공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있다면서 진로 변경을 요구했다. 한국 항공기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있었고 비행 경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중국 전투기가 다가와 경고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틀어 한국 비행기와 충돌했다. 한국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해 실종되었고,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항공기는 근처 중국 본토 기지로 귀환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중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역내 평화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와

같은 비행을 전면 중단할 것과 중국 주권을 위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이 되풀이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무기 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외교적 수단을 선호해왔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떤 국가들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야만적이어서 북한의 인내에 감사할 줄 모른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이제 북한의 결의, 결단력과 역량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사건들은 강력하고 단호한 방위 전력과 태세만이 영광스러운 북한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든 국가들을 곧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1. 귀 팀은 동 시나리오를 어떻게 요약·설명하시겠습니까?
2. 귀 팀이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개의 외교 조치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3. 귀 팀이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개의 군사 조치는 무엇입니까?
4. 귀 팀이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각각 가장 바라는 바 다섯 가지는 무엇입니까?
5.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6. 중국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TTX 2 단계

2019년 9월 6일 마우이

1 단계 사건 발생 48 시간 후. 자국 선박이 피격되자 일본 정부는 손상된 선박의 반환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사세보로부터 몇몇 선박과 항공기를 파견했다. 한국은 추락한 항공기와 승무원을 찾기 위해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했다. 미국의 국방부 및 국무부 장관은 두 사건을 “생명을 앗아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책임있게 행동할 것과 오산이나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한일 양국 정부에게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은 경보 수위를 격상하고 정찰 및 감시 활동이 강화했다.

중국은 자국 잠수함 중 하나가 누락되어 황해에서 침몰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중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날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에 의해 침몰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국 정부는 선전 캠페인을 시작했다. 인민 일보와 중국 일보에는 중국 군의 위상, 국가의 명예와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군의 결의, 다시는 패배하지 않고 외세의 적들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는 중국 국민들의 의지를 칭송하는 민족주의적이고 맹목적 애국주의적 논평들이 게재되었다. 인민군 일보에도 이와 유사한 서명되지 않은 논평들이 나타났다. TV 프로그램들은 예정에 없이 중국군의 신형무기(특히 핵 자산)들을 선보였다. 외교부는 잠수함 관련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지만, 어느 누구도 중국을 공격하고서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의 국방은 침범될 수 없고, “불장난을 하는 자는 불에 탈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체이며, “이제 미국과 ‘소위’ 미국의 우방이라는 국가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동맹시스템의 유용성이 이미 다 했으며, 이제 아시아와 현 시대의 수요에 맞는 아시아 중심의 안보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중국측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말 것과 중국인들의 결단을 과소 평가하지 말라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미국과 그 우방들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련 보고서는 DF-21 이동 미사일과 발사기가 배치되고 분산되는 등 중국군 기지의 미사일들이 동원되었다고 보고했다. 기지에는 DF-21 재래식과 핵미사일 여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한 선박, 잠수함 및 항공기를 포함하여 북동 및 동해 함대 지역에 전투태세가 갖추어 지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중 일부 선박들은 한국의 항공기가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의 수색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 해군이 해당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모든 군 혹은 민간 선박에게 동 지역을 떠날 것과 향후 접근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항행 통보(Notice to Mariners)를 발표하고, 동 연습에 미사일 발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군대를 동원하여 연평도를 침공했다. 격렬한 총격전으로 다수의 한국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혹은 인질로 잡혔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북한 언론은 동 사건을 “김정은의 영도하에 새로운 북한이 태어났다는 증거이며, 우리 국가에 대해 저지른 역사적 잘못과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사전 경고 없이 일본 상공을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동부 해안에서 2,00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켰다. 북한은 발사 후 “김정은의 영도 아래 영광스러운 조국은 다시 무적 상태를 보여 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도전하거나 우리의 승리를 무효로 만들려는 자는 모두 우리의 막강한 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전력 (혹은 단순히 어선일 수도 있다)이 상륙을 시도하기 위해 센카쿠 섬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1. 귀 팀은 동 시나리오를 어떻게 요약·설명하시겠습니까?
2. 귀 팀이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개의 외교 조치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3. 귀 팀이 즉각적으로 취할 다섯 개의 군사 조치는 무엇입니까?
4. 귀 팀이 다른 동맹국/파트너들에게 각각 가장 바라는 바 다섯 가지는 무엇입니까?
5.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6. 중국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